

열기가 식지 않는 기도

성경 열왕기상 17:17-24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최근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향한 우리 가정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소서.

찬양

1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은혜의 찬양 372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데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2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말씀 읽기 열왕기상 17:17-24

-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 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본문 배경

그릿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르밧은 당시 산업 중심지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릿 시냇가에서 고생한 엘리야를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르밧은 극심한 가뭄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과부에게 양식을 청합니다.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양식이 마지막 한 번 먹을 정도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를 자신에게 먼저 주고, 그다음에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과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니 하나님이 과부의 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텐데 그가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모습을 본 엘리야는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 라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방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결국 이방 여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24절).

말씀 관찰

1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들이 숨을 거두자 그녀는 어떻게 반응 했나요? (18절)

답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찾아왔냐고 엘리야에게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해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리고 병세가 위중해지더니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녀가 죽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과부는 순간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찾아왔냐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누구나 원망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 자신에게 찾아온 엘리야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2-23절)

답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해설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과부의 원망을 다 받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세 번 펴서 엮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자세는 그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경험했던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이야기 해 보세요.

말씀 암송

10-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시편 119편 71절

작곡 이종윤

스윙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길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 자리마다 뜨거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온기를 유지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